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8.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69장

대표기도 / (1부) 김춘자 권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사도행전 12:1~12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고난 속의 기적” / 전종남 목사

(A miracle in hardship)

찬 송 / 543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59장, 310장 기 도 / 강현주 권사

성경봉독 / 마태복음 28:19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성례(聖禮)의 의미와 효력” / 전종남 목사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the sacraments)

■ 저녁 7시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406장, 407장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2:12-31

말 씬 / “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민수기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정인종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박영미 전도사	이상혁 장로	김상금 권사

예배 위원

2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임진수 이영희 최미진	
헌금 전갑영 양낙석 우말순 전복희 배복수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김명순 노상현(이정숙) 심주원 심창보(유효영) 유병용(황하연) 유예원 이옥미 이창호 임윤지 장송자 최승태(김상금)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병숙 김순천(연유희) 김영덕(이영희) 김영화 노상현(이정숙) 윤진태(이기숙) 심창보(유효영) 엄상희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강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조예림 최승태(김상금)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한지연 무명1 *작성헌금: 송미숙 *자녀소원: 조예림
교육헌금	김명순 김순천(연유희) 심창보 유효영 이선희 임윤지 임진수(정해순) 최인숙
주일헌금	정충호(윤태향) 한지연 무명 구역헌금 유치 유초 종교
선교헌금	2여 신춘봉(박영미) 심창보(유효영)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구제헌금	심창보(유효영) 최환철(이동순)

오늘 (2/25) 오후예배 설교요약

30과. 성례의 의미와 효력 (마28:19)

담임 전 종 남 목사

성례(聖禮)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적인 징표에 의하여 성도들에게 제시되고 인(印)처지며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성도들은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된다. 성례의 효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 중에서 1번~5번 항목을 다룬다.

1.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마28:19, 고전11:23)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징이자 보증의 표이다(롬4:11, 창17:7, 10).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할 뿐 아니라(고전10:16, 11:25-26, 갈3:27, 17).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외의 세상에 속한 자들의 ()를 가시적(可視的)으로 드러내고(롬15:8, 출12:48, 창34:14),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엄숙한 태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롬6:3-4, 고전10:16, 21).

2. 모든 성례의 상징과 상징이 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연합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의 명칭과 효력은 후자로부터 비롯한다(창17:10, 마26:27-28, 딤후3:5).

3.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 안에서 또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은혜는, 그 안에 내재된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성례의 효력은 집행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고(롬2:28-29, 벰전3:21), ()과 ()에 달려있으며(마3:11, 고전12:13), 그 말씀은 성례의 사용을 허가하는 계명과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마26:27-28, 28:19-20).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 곧 세례와 성찬뿐이다. 합법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 외에는 그 누구도 세례나 성찬을 베풀 수 없다(마28:19, 고전11:20, 23, 4:1, 히5:4).

5.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영적 현실은,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고전10:1-4).

질문.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골2:11-12)

또한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무엇과 동일시되고 있나요? (고전5:7)